

# 용감한 사람이 필요하다

의정단상

이명노

광주시의원



2024년 5월 18일, 국가보훈부 주관의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의원들은 기념사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침묵 시위를 했다. '5/18/헌/법/전/문/수/록'이 각각 적힌 여덟 장의 종이는 여덟 명의 주머니에 한 장씩 숨겨져 채 경호처의 검문검색을 통과할 수 있었고, 이내 펼쳐져 완성된 문장은 시민들의 뜨거운 격려와 박수를 받았다.

수차례 충격을 준 현 정권의 트레이드마크 '입틀막'으로 끌려 나가거나 격한 제압을 예상했으나 그렇지 않았던 건 오롯이 주변 시민들과 유족들의 저항 덕분이었다. 비장한 마음으로 손피켓을 들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가 제지하는 경호원들을 보고 "웁은 말 하는데 내버려 두세요!", "가만히 두세요!"

라고 외치며 방어 해주시던 덕에 기념사를 마칠 때까지 대통령의 눈에 '5·18 헌법 전문 수록'이라는 국민의 요구를 각인시킬 수 있었다. 기념사가 끝난 뒤 박수와 환호는 대통령이 아니라 오히려 의원들이 받았고 언론에서도 이 일화를 속보로 다루주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헌법전문수락을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피켓을 들고있는 의원들에게 호응하는 시민을 봐서 검토해 보겠다는가 하는 메시지라도 줄법하지만, 그 정도 정무적 판단을 기대할 인물이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하고 있었다. 그보다 이날 시민들께서 주신 격려 중 뇌리를 스친 단어가 있어 기고문에 적어본다.

'용기'였다.

기념식을 마치고 "대단한 용기였다. 우리 시의원들 자랑스럽다"라는 시민들의 말씀에 조금 고무됐다. 용기를 가지고 한 일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말이다. 다른 위원들의 생각은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정다운 위원장이 이 프로젝트를 제안할 때, 그렇게 해서라도 국민의 뜻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고민 없이 나섰다.

용기(勇氣)의 사전적 의미는 "씩씩하고 굳센 기운. 또는 겁내지 아니하는 기개"다. 겁나지 않았던가 돌아본다. 지방의원이 대통령에게 직접 뜻을 전할 기회란 사실상 없는 것을 이렇게라도 표현하는 도전이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피켓을 들고 비장하게 서 있었다. 돌아보니 얼추 용기였다.

민원을 듣고 해결할 때나 회의장에서 열띤 토론을 벌일 때, 열심히 다니며 주민들을 만날 때만은 찬찬과는 사뭇 다른 환호가 벅차고도 따스했다. 어쩌면 그만큼 시민들이 기대한 모습이라, 가려운

곳을 긁어드렸던 덕이라 짐작한다.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고 땀 흘려 노력하는 모습도 좋지만, 용감한 행동도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이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용감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 멀게는 고려의 문신 문익점이 원나라에서 북대에 목욕씨를 감춰 들여왔던 역사도, 윤봉길 의사와 안중근 의사의 독립운동이 당대에 전한 울림도, 총칼과 군홧발에도 민주화의 열망을 굽히지 않았던 80년 5월 열사들의 희생도. 누군가의 크고 작은 용기가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워 알고 있다.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의 완전한 정의는 실현되지 않아서 부당한 사회구조에 짓눌려 누군가는 고통받고 있다. 이때 국민이 권한을 맡겨준 대리인의 역할은 자명하다. 용감한 영웅이 돼야 한다. 앞으로 정치인생을 살아가며 이날의 용기를 잊지 않으리라 다짐한다.

마침 일주일 뒤면 용기를 보여줘야 할 새로운 인물들이 국민 곁에 다가간다. 임기를 시작할 300명의 국회의원 당선인도 반드시 유념하길 바란다.

부당한 일을 마주할 때 피하지 말고 맞서주십시오. 적당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 국민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부디 사리지 말고 용감하게 나서는 사람이 돼주십시오. 아직 세상은 더 나아져야 하지 않겠는가.

## 社說

### 전남 의대신설 지역주의 기반 결정 안돼

#### 지자체·여론 등 유치경쟁 과열

전남에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놓고 목표와 순천 자치단체와 주민간 유치경쟁이 과열로 치닫고 있다. 여론도 동서로 극명하게 갈라지는 모습이다. 지역에 국립의대가 필요한 것은 어느 특정 지역이나 대학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남의 발전에 있다. 의대 신설과 관련된 정부의 의지마저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소지역주의가 안타깝다.

당장 목포시와 목포대, 목포시의회는 23일 의료여건이 취약한 서부권, 목포대에 국립 의과대를 신설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맞서 순천시의회와 광양시의회 등 전남 동부권 7개 시·군 의회도 순천대에 의대를 유치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앞서 지난 12일 열릴 예정이던 국립 전남의대 공모 등과 관련된 5차 전남도 순천시와 순천대가 불참키로 하면서 회동 자체가 무산됐다. 의정(醫政) 갈등과 동서갈등 속에 정부의 추진의지마저 불투명한 상황에서 '30년 지역숙원'이 또다시 불거뿐이 되는 것이

니나는 우려도 나온다.

의대 신설을 놓고 지역주의에 기반한 결정은 특정 지역에 특혜를 주는 결과로 이어진다. 의대와 같은 교육기관의 설립이 지역적 균형을 고려해 전남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소지역주의를 배제하고 전남이라는 큰 틀의 발전을 위한 결정을 내릴 경우, 투자의 효율성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동부와 서부라는 어쩌면 '미미한' 차이를 넘어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하면, 전체 전남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세계가 이웃인 글로벌 시대, 내 지역에만 좋은 시설이 들어서야 한다는 것은 시대이념과 맞지 않는 진부한 생각이다. 30여 년만에 어렵게 주어진 기회가 소지역주의에 매몰되고 정치적 이익의 대상으로 전락해서도 안된다. 전남에 국립의대를 신설하는 가장 큰 가치는 지역 사회에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는 데 있어야 한다. 차별받는 전남도민의 헌법적 권리를 '우리만 옳다'는 소지역주의로 이렇게 무산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 복합쇼핑몰 속도전 앞서 신중 기해야

#### '더 현대 광주' 디자인 등 공개

광주에 복합쇼핑몰 건립이 속도를 내고 있다.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들어서서 광주 최대 규모 복합쇼핑몰이자 랜드마크가 될 '더 현대 광주' 설계 디자인이 공개됐다.

'더 현대 광주'의 건축디자인은 세계적 건축가인 '헤르초크&드피롱'이 맡았다. 더현대 서울보다 1.5배 크다. 광주시와 사업 주체인 (주)현대백화점은 협약을 통해 '더 현대 광주'의 원활한 추진과 소상공인과의 상생, 지역 경제·문화·관광 활성화에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 지난 22일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정지영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현대백화점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더 현대 광주'는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 인허가를 완료한 뒤 착공할 계획이다. 준공 및 개점은 2027년 하반기로 예정하고 있다.

'광주에 복합쇼핑몰도 없다'는 지난 대선때 이슈가 최초 발화점으로 시작, '꿀잼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광주 어등산, 광천동 신세계 확장구 옛 전방·일신방직 등 3곳에 유치가 할

발하게 진행중이다. 광주시민들도 큰 기대감 속에 복합쇼핑몰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당장 광주 상권의 50%가 넘는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전략이다. 복합쇼핑몰 자체가 쇼핑뿐 아니라 먹고 즐길 거리를 동시에 갖추기 때문에 복합쇼핑몰 주변 골목상권이 휘청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복합쇼핑몰은 광주시민 상당수가 환영하는 일이지만 소상공인과의 동반 성장에 이익을 제기하는 시민은 없을 것이다.

교통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복합쇼핑몰이 들어설 경우 주변일대가 하루 수만대의 차량 왕래가 예측된다고 한다. 기존 도로 구조로는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피할 수 없다. 광주시가 지하철 노선 신설 등 교통대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추가 교량, 도로 개설은 시급해 보인다. 비용을 놓고 줄다리기도 예상된다. 복합쇼핑몰 조성은 일자리 창출, 문화 불균형 해소 등 많은 긍정적 요인이 있지만 속도전에 치우치다간 지역상권 붕괴, 교통대란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예상된다. 복합쇼핑몰 조성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 사진으로 보는 세상

22일(현지시각) 미국 아이오와주 그린필드에서 토네이도로 집을 잃은 한 가족이 파괴된 주택 잔해 앞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 미 중남부 곳곳에서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해 인구 2000여 명의 그린필드는 집과 나무, 자동차들이 파괴돼 거의 폐허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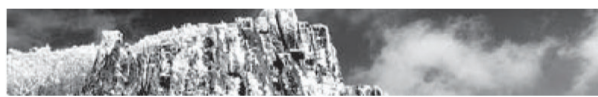
AP/뉴시스

#### 서석대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화려한 궁전을 지어라." 1631년 어느 날, 무굴제국 5대 황제 샤 자한이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왕비 톱타즈 마할과 함께 데칸고원 원정길에 올랐던 황제. 하지만 전투지에서 왕비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고, 슬픔에 잠긴 황제는 1년 여를 고민한 끝에 왕비를 영원히 기억하는 '궁전 같은 묘지'를 짓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궁전에서 내려다 보이는 야무나 강가에 장소도 마련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타지마할이었다.

타지마할은 명성만렙 세기의 대역사였다. 타지마할이 축조되는 동안 제국의 수도 아그라에는 페르시아와 이탈리아 등에서 수천 명의 기술자와 장인이 초빙됐고, 명나라와 오스만 제국, 아라비아 등에서는 진귀한 건축자재가 끊이지 수송돼 왔다. 궁전 내·외부를 장식한 다이아몬드와 홍옥 등 보석류도 엄청났다. 그리고 착공 22년 만인 1648년, 타지마할은 화려한 무굴양식과 하얀 대리석 위에 새겨진 꽃과 조각 등이 어우러진, 묘지 이름 그대로 '찬란한 무덤'으로 완성됐다.

타지마할은 또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면서 '세기적인 사랑'이 탄생시킨 걸작이다. 길이 338m, 너비 305m의 세계에서 가장 큰 무덤이면서 눈부신 대리석 점탑



과 세밀한 모자이크 장식은 인도-이슬람 건축을 대표할 만큼 정교하고 화려하다. 동서남북 어디서 봐도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기하학적 정원은 '사분정원(四分庭園·차르바그)'으로 불릴 만큼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시도였다. 하지만 타지마할은 역설적으로 그 화려함 때문에 끊임없는 약탈의 대상이었다. 특히 인도를 식민통치한 영국은 거대한 돌을 장식하고 있던 황금을 떼어내고 구리로 덮는 등의 악행을 저질렀다.

최근 정치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경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두고 난리법석이다. 문 전 대통령은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혈세낭비'라며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특검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백 번 양보해도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을 특검으로 다루겠다는 것은 '모기를 보고 칼을 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인도 시인 타고르는 타지마할을 두고 '황제의 눈물로 만들어진 마법'이라고 했다. 우아함과 경이로움, 소름이 끼칠 만큼 아름답다는 타지마할.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화려한 그 불가사의를 말조적 정쟁을 쫓는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이렇게 우스꽝스런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이용환 논설실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